

지역 매아리

완주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완주군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24일 완주군은 고산소재지에서 군의원,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현수막, 피켓 홍보와 불법 주정차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직접 주민들과 대면하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안전의식개선을 꾀했다.

캠페인 주제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지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이 있다.

완주군은 지난 7월부터 용진, 봉동, 삼례에서 매일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오는 11월과 12월에는 소양, 이서면 소재지에서 군민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동열 재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며 "이에 군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농기센터, 농업기계박람회

먹거리장터 운영단체 안전·위생 교육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4일간) 김제 벽골제에서 개최되는 2019 김제농업기계박람회 먹거리장터 음식부스 운영 단체를 대상으로 안전 및 위생 교육을 24일에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2017년에 비해 1개 단체가 추가되어 총 5개 단체에서 참여, 박람회를 위해 김제시를 찾는 손님들에게 우리시의 푸근하고 정겨운 인심과 맛 좋은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서 참석자들은 외부장소에 조성된 먹거리장터 특성을 반영하여 옥외행사장 가스시설 기준 제시와 현장 적용을 통한 안전관리 및 사용법에 대해 배우고,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과 먹거리 환경을 위한 위생분야 당부사항에 대해 전달받았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재원인과 초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아 안전한 행사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은 "김제농업기계박람회를 위해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김제시의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친절한 응대와 아낌없는 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며 "화재, 가스, 기타 위생 등 모든 분야에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장,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전북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과잉생산된 농공 가공산업화 당위성 설명·국비 반영 건의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시장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국회 예산심의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논 타작물 재배 일환으로 과잉 생산된 농공에 대한 가공산업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내년도 국비 반영을 건의하였고 안호영의원, 정문천의원 등 도내 의원들에게는 국도 1호선 급구~전주간 확장 및 선형개량사업 등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23일 오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심포마리나향 복합부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오후에는 국회를 찾아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의의 활동 본격화 흐름에 발맞춰 예결특위 및 농해수위, 국도위 소속



김제시장은 정동영 의원에 만경강 고수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국회의원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현안사업의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권미혁의원 등 예결특위 위원에게는 '우리콩 가공 기반구축 사업' '금강 지구 영농편익 증진사업' '국립간척지 농업연구센터 건립' '백구특장차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등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지원을 건의 하였고 정동영 의원 등 국도위 의원을 면담하여 만경강 고수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당위성

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시장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한 국가예산확보가 필수적으로 예산확보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심의에 철저히 대응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전북도와 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공단지 입주기업 소통마당 개최

(사)전북농공단지협의회 최태호 회장(만경농공단지 백광아이에스티 대표)은 24일 오전 11시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제시, 전북농공단지협의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내 7개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통마당'을 개최하였다.



이날 소통마당은 박준배 김제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김제시, 지원기관의 다양한 시책과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및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각종 경영 규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김제시는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사업,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및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준배 시장은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도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사)전북농공단지협의회 최태호 회장은 "기업과 소통을 위해 현재 14개 시군을 순회중이며, 전북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입주환경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모집

영농교육, 실습 텃밭 운영 지원...11월 1일까지

완주군이 예비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을 접수받는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고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2평형 4세대, 18평형 6세대 총 1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빌라형 주택으로 도시민들에게 완주군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매년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에서는 예비 귀농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약 1년간 거주하면서 연간 200시간의 영농 교육과 실습 텃밭 운

영, 농장과 1:1멘토링을 맞춤형 컨설팅 및 실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 귀농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완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입교생 모집은 11월 1일까지 진행되며 총 15세대(최종 10세대, 대기 5세대)를 접수 받는다.

접수처는 완주군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혹은 이메일로 진행하고 있다.

접수 문의는 담당자(063-290-2472)로 하면 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빈병 수거로 일자리 창출하고, 환경보호까지

완주군-고용노동부, 전국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대회 시상식 개최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과 함께 개최한 전국 일자리정책 공모전의 최종발표가 이뤄졌다.

24일 완주군은 지난달 23일 완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박성일 완주군수, 정영상 지청장, 양근상 전주고용센터소장, 결선 진출자,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완주 전국 일자리 정책 공모전' 최종발표 및 시상식을 가졌다.

결선 결과 최대회씨가 제안한 '공병이 만드는 기적 착한공병', 최미영씨가 제안한 '노인이 행복한 완주군을 위한 중간다리 복지서비스', 오상혁씨가 제안한 '사회적경제 방식의 공공기관 위탁급식으로 일자리 창출'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각 500만원 상금의 주인공이 됐다. 착한공병은 빈병 수거 및 기부할



완주군은 지난달 23일 완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회 완주 전국 일자리 정책 공모전' 결선 결과 최대회씨, 최미영씨, 오상혁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동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호평을 받았다. 중간다리 복지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에서 못하는 부분을 콜센터, 대행서비스, 로컬푸드 도시락 제조 등 노인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자리 창출로 호평을 얻었다.

또한, 사회적경제 방식 공공기관 위탁급식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급식을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확대하겠다는 일자리 창출로 완주군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김현씨의 '명탐정(명소탐방정복) 프로젝트', 이수관씨의 영농부농(young농喜農) 일자리', 송지은씨의 '넷서버 서비스'로 3명이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26건이 접수돼 2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이 결선에 진출했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3건(각 500만원), 우수상 3건(각 200만원), 노력상 5건(각 10만원) 등 총 11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열어

김제시는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위해 24일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 모색 및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동안의 주민자치센터 주요성과와 활동사항을 점검해 보고, 향후 주민자치 센터의 발전방향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19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 주도형 특색사업으로 민경을 만들고 추장 나눔사업 외 28개 지역특색사업

을 발굴·추진하여 취약계층 사랑나눔 먹거리사업과 지역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협력, 봉사를 통해 다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래교실 등 88개 문화·취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단순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한걸음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